■민족문화연구 제100호(2023.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495-530.
http://doi.org/10.17948/kcs.2023..100.495

학술 용어 자료 구축 결과물의 정의문의 구조와 보완*

이준환(李準煥)**

목 차

1. 시작하며
2. 정의문의 유형 분류 및 구조 분석
3. 학술 용어 정의문의 구조 보완의 필요성 및 방안
4. 끝맺으며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그간 여러 곳에서 진행되어 왔던 학술 용어 자료 구축의 결과물에서 용어의 뜻풀이에 해당하는 정의문으로 제시된 것들을 고찰 대상으로 삼아 정의문의 형식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면을 유형화하여 살펴보고 이런 구조적인 양상이 지닌 문제점을 어떤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지에 관하여 논의하여 보았다. 고찰 결과 학술 용어 정비 결과물에서의 정의문의 제시 방식은 다음과 같이 모두 10가지 정도로 유형화되었다. (1) 동의어 및 동의어구 제시 유형, (2) 동의어 및 동의어구, 부가 정보의 순차적 제시 유형, (3) 용어 정의, 부가 정보의 순차적 제시 유형, (4) 부가 정보, 용어 정의의 순차적 제시 유형, (5) 부가 정보가 복합된 형태의 정의문 제시 유형, (6) 표제어가 포함된 정의문 제시 유형, (7) 예시를 통한 정의 유형, (8) 반의어를 이용한 정의 유형, (9) 개념 설명, 개념어, 예시 등의 괄호 안 병기 유형, (10) 유개념의 미제시 유형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정의문의 제시 방식은 형식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국어사전과 교과서 전문 용어 정의문의 형식 등을 기준으로

* 이 글은 2022. 12. 2.(금)에 있었던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2022 학술용어 정비 학술대회에서 「학술용어 정비에서의 정의문 구조와 체계」란 이름으로 발표한 것을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삼아 적절히 보완되고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여 사전 및 교과서와 연계가 수월해지고, 용어 정비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정보 구조의 면에서도 체계성을 띠고 이에 기반하여 용어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요청된다.

주제어: 학술 용어 자료 구축, 정의문, 정의문 제시 유형, 정의문의 형식 보완, 국어사전, 교과서 전문 용어.

1. 시작하며

이 글에서는 그간 여러 곳에서 진행되었던 학술 용어 자료 구축의 결과물에서 용어의 뜻풀이에 해당하는 정의문이 제시되는 형식이 어떠하고, 각 정의문의 형식이 지닌 구조가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전학적인 관점에서 표제항을 풀이하는 정의항에 제시된 정의문의 적절성 여부를 살피고, 정의문이 지닌 문제점을 어떤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1)]

학술 용어에 관한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어의 형태와 이 형태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즉, 의미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형태는 용어의 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런 표기를 결정하는 데에는 용어의 어원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이처럼 어원을 고려한 표기는 의미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복합어나 이에 상당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 학술 용어의 경우 구성 요소의 복합에 의해 그 내용이 파악된다는 점에서 어원을 고려한 형태의 표기는 더욱 중요성이 크다.

내용에 관한 것은 용어가 지시하거나 내포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정의와 직접 연결된다. 이 정의는 대개는 문장의 형태로 표현된다. 이렇게 문장 형태로 내용을 표현한 것을 정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문은 용어 사용자로 하여금 내용을 정확하고 적절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에 절대적 중요성이 있다. 그렇기에 집중적인 고찰의 필요성이 있다.

---

1) 따라서 이곳에서 말하는 정의문은 하나의 문장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의항에서 표제항(피정의항)이 지닌 의미를 드러내는 데에 사용되는 언어적 표현 일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를 갖는다.

그간 민관에서 이런 학술 용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여러 분야의 용어를 구축하고 정비하여 왔다. 이렇게 정비된 것들이 모두 학술 용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학술 용어의 성격을 지니는 것들에 포함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사실 학술 용어와 비학술 용어를 분명히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학술 용어란 말 대신에 내용이나 사용 계층이나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전문 용어라 할 수도 있고, 국가와 사회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공공 분야에서 쓰이는 것이라는 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공공 용어라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개념을 표현하는 데에 쓰이는 말이라는 점에 역점을 둔다면 그냥 용어라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어느 하나로 만족스럽게 지시되거나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글의 검토 대상이 된 용어 자료가 학술적 논의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논의 대상이 되는 용어를 학술 용어로 가리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비되어 온 것들은 각 기관 또는 단체의 누리집이나 공공 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공개되어 있다. 이렇게 공개된 학술 용어는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데, 이 중에서 용어집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과 내용적 요건을 잘 갖추고 있어서 정비가 수월하고 언중들에게 노출되는 정도가 높은 것들을 대상으로 삼아 국립국어원에서는 「분야별 용어 정비」라는 이름으로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학술 용어를 정비 지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언어 사전의 틀에 따라 보완하고 정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 공개된 자료 중 국립국어원의 정비 대상이 된 『한국 문화재 용어 사전』(한국국제교류재단), 『주택 금융 용어집』(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적 및 공간 정보 용어 해설집』(한국국토정보공사), 『환경 및 무역 관련 용어 정의 정보』(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올라 있는 용어를 고찰 대상으로 삼는다.[2] 이처럼 정비 대상이 된 용어집은 이미 구축된 학술 용어

2) 『한국 문화재 용어 사전((Dictionary of Korean Art and Archaeology)』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한국 문화재 가운데 건축(395개), 고고학(884개), 미술사(1,203개) 관련 용어 2,482개를 국문과 영문으로 풀이한 것으로 2005년에 한림에서 발행한 것이다. 이 사전에 실린 안휘준 교수

에서 보이는 정의문의 형식과 구조상의 특성을 사전학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에 적절한 연구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학술 용어의 정의문에 관하여는 그간 다음과 같이 연구된 바 있는데, 연구의 주된 방향은 정의문의 요건, 유형, 형식, 내용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 동향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의문의 요건, 유형과 관련해서는 김성진・정동열[3], 최준[4] 등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김성진・정동열[5]에서는 학술 용어의 정의문이 어떤 요건을 갖추어 있어야 하는지를 살피고, 정의의 유형을 분석적 정의, 개념적 정의, 내포적 정의로 나누어 개괄하였다. 최준[6]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물리・생물 분야의 용어를 대상으로 부가 정의문의 범주와 정보 유형, 부가 정의문에 내포된 정보 유형의 귀납적 검토, 부가 정의문 정보 유형의 분포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폈다. 최준[7]에서는 과학 교과서 말뭉치를 대상으로 전문 용어 정의문의 유형을 엔그램(N-gram)의 방법론적 개념 도구를 활용하여 정의문의 형태와 패턴을 분석하고, “한정적 특징+{-는/의} 부류어+{를/는} 종개념+{이-}+{라(고)} V{하다/부르다}” 등과 같이 6가지 유형을 도출하여 제시한 바 있다.

정의문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이해윤[8], 김재호・배선미・신효식・최기선[9]을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의 서평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문화재 용어를 간결하게 풀이해 냄으로써 일반인들이 접할 때 겪는 이해의 어려움을 손쉽게 풀어 주는 사전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주택 금융 용어집』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연구원, 주택보증부가 중심이 되어 183개의 용어를 국문으로 풀이한 것이고, 『지적 및 공간 정보 용어 해설집』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 용어 1,866개를 어원 정보를 제시하여 정의를 한 것이고, 『환경 및 무역 관련 용어 정의 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 및 무역 관련 용어명과 그 해설(번호, 용어의 명칭, 명칭에 대한 해설과 정의, 사례 등)을 제공한 것으로 표제어의 개수는 31,012개이다.

3) 김성진・정동열, 「전문용어사전의 미시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1, 한국문헌정보학회, 2001, 143-162면.

4) 최준, 「과학 전문 용어 부가 정의문의 정보 유형 및 패턴—『표준국어대사전』 물리・생물 분야 뜻풀이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국사전학』 34, 한국사전학회, 2019, 127-157면; 최준, 「전문 용어 정의문의 형태 및 패턴 분석—과학교과서 말뭉치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3-4(통권 80),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783-803면.

5) 김성진・정동열, 앞의 글.

6) 최준, 앞의 글, 2019.

7) 최준, 앞의 글, 2021.

8) 이해윤, 「전문용어의 정의문 분석」, 『독어학』 7, 한국독어학회, 2003, 145-163면.

들 수 있다. 이해윤[10]에서는 정의문이 지니는 형식에 관하여 다루고, 세부 형식으로 ① 상위어+차이점, ② 동의어 제시, ③ 다시 쓰기, ④ 종합, ⑤ 함의, ⑥ 예시에 해당하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김재호・배선미・신효식・최기선[11]에서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정의문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문의 형식과 정의문 추출 시스템 설계를 다루었는데, 정의문의 기술 형식으로는 ISO 704 규격에 따라 'X(정의될 용어)=Y(X에 대한 상위 개념)+차별적 의미 특질소(동위어들과 X를 구별하여 주는 특징적인 의미 속성)'을 표현되는 것을 고려하여 '용어=def 의미 특질소+상위 개념'식으로 채택하였다.

정의문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김현권[12]을 들 수 있다. 이곳에서는 용어 정의의 내용과 관련한 바를 다루었는데, 이 논의에서는 지식소를 이용하여 정의가 '① 핵심적(속성) 지식소+② 부차적(관계) 지식소+③ 실용적(응용) 지식소'가 결합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살피고 있다.

한편 학술 용어 구축 및 정비와 관련해서는 김정훈・황유모・홍진웅・정찬수・최규하[13], 김형국[14], 유희수[15], 이현주・조동성[16], 최기선・박정원[17]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정의문에 관한 관심보다는 용어의 표준화에 초점을 맞추어 표기와 어휘 선택의 문제 등이 다루어졌다. 따라서 용어의 내용보다는

9) 김재호・배선미・신효식・최기선, 「의학 전문용어의 정의문 자동 추출」,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31(1B), 한국정보과학회, 2004, 922-924면.
10) 이해윤, 앞의 글.
11) 김재호・배선미・신효식・최기선, 앞의 글, 2004.
12) 김현권, 「전문용어사전의 정의와 지식표상」, 『한국사전학』 22, 한국사전학회, 2013, 32-71면.
13) 김정훈・황유모・홍진웅・정찬수・최규하, 「학제간 학술 전문용어의 정비 및 표준화를 위한 전기분야 원칙에 대한 연구」, 『2005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대한전기학회, 2005, 864-865면.
14) 김형국, 「정치외교학 분야 학술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작업」, 『한국국제정치학회소식』 123,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20-21면.
15) 유희수, 「학술 전문 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 『한국서양중세사학회 연구 발표회』 42, 한국서양중세사학회, 2006, 9-22면.
16) 이현주・조동성,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의 특징 및 과제」, 『한국어 의미학』 35, 한국어의미학회, 2011, 245-283면.
17) 최기선・박정원, 「전문용어의 정비」,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학술발표 논문집』,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2007, 303-310면.

용어의 형식에 관한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온 경향이 보인다.

이와 같이 용어 형태의 표준화에 역점을 두고 학술 용어에 관한 접근이 이루어진 반면에 내용에 관한 것인 정의문에 대하여는 접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학술 용어 정비 결과물을 대상으로 용어의 내용에 해당하는 정의문에 관한 것에 관심을 모아 정의문의 형식 및 구조화 방식을 유형화하여 살피고 이들 정의문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언어 사전의 틀에서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의문의 유형 분류 및 구조 분석

학술 용어의 정의문은 용어 정비 자료집을 전체적으로 훑어본 결과, 국어 사전에서 전형적으로 이용하는 종차와 유개념의 결합으로 된 유형 이외에 다음과 같이 10개의 유형이 두루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추출된 10개의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료의 현황을 제시하고 논의한다.

자료의 출처는 『한국 문화재 용어』는 〈문화재〉, 『주택 금융 용어집』은 〈주택 금융〉, 『지적 및 공간 정보 용어해설집』은 〈지적 및 공간〉, 『환경 및 무역 관련 용어』는 〈환경 및 무역〉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자료의 표기, 띄어쓰기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내려받은 엑셀 파일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제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1) 동의어 및 동의어구 제시 유형

① 흰자기(瓷(磁)器): 백자〈문화재〉
② 흙불(佛): 토불〈문화재〉
③ 흑도(黑陶): 검은간토기〈문화재〉
④ 횡혈식(橫穴式): 굴식〈문화재〉
⑤ 청동낚싯바늘(靑銅): 청동제 낚싯바늘〈문화재〉
⑥ 청동활촉(靑銅-鏃): 청동제 화살촉〈문화재〉
※청자와(靑瓷(磁)瓦): 청자로 만든 기와〈문화재〉

⑦ 조적공사: 벽돌공사〈주택 금융〉
⑧ 하등(何等)의: 아무런, 어떠한〈주택 금융〉
⑨ 판명되다: 밝혀지다〈주택 금융〉
⑩ 산정: 계산〈주택 금융〉
⑪ ZONE SETTLING: 계면침전; 제 3형 침전〈환경 및 무역〉

가장 먼저 (1)과 같이 동의어 및 동의어구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한 것들이 적지 않게 관찰된다. 이런 양상은 통상적으로 표제어에 비해 정의항에 제시된 동의어 및 동의어구가 더 일반적으로 쉽고 널리 유통되고 있는 어휘임을 볼 때, 이곳에서도 표제어와 정의항에 제시된 것이 그런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의문 대신에 구가 제시된 ⑤ '청동제 낚싯바늘', ⑥ '청동제 화살촉', ⑪ '제 3형 침전' 등은 거의 다 『우리말샘』에 실려 있다. 이에 반해 표제어 중 『우리말샘』의 등재어인 것은 ③ '흑도', ④ '횡혈식', ⑥ '청동활촉', ⑧ '하등의', ⑨ '판명되다', ⑩ '산정'에 해당한다. 나머지인 ① '흰자기', ② '흙불', ⑤ '청동낚싯바늘', ⑦ '조적공사', ⑪ 'ZONE SETTLING'은 『우리말샘』의 미등재어이다. 이처럼 표제어보다 정의항에 제시된 것들이 『우리말샘』의 등재어인 경우가 많다는 것은 동의어로서 뜻풀이를 하는 일반적인 경향에 비추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⑥과 같이 표제어는 『우리말샘』 등재어인데 정의항의 어구는 미등재어인 것이 보여, 이러한 일반적인 양상과 거리가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⑤, ⑪과 같이 표제어와 정의항의 어구 모두 미등재어인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정의항의 어구만 미등재어인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전문가들이라면 모르겠으되 비전문가나 일반인들이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유형에 해당한다.

끝으로 ⑤ '청동제 낚싯바늘'과 ⑥ '청동제 화살촉'의 경우는 형식상으로는 명사구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 구성 성분에 들어 있는 '-제(製)'가 '-으로 만들어진 것'을 뜻하는 것으로 서술성이 있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의미상으로는 종개념과 유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참고로 제시한 '청자와'를 "청자로 만든 기와"로

풀이하고 있는 것과 의미상으로는 동일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형이 된다.

이런 점에서 ⑤ '청동제 낚싯바늘'과 ⑥ '청동제 화살촉'은 '청동낚싯바늘', '청동활촉'의 환언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원자료에서 나온 것인데도 ⑥의 경우는 ⑤와는 달리 표제어와 후행 요소의 형태가 같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렇지만 이 둘을 묶어서 다루는 것이 좋겠고, 온전한 정의문은 서술어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동의어 또는 동의어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된다.

⑵ 동의어 및 동의어구, 부가 정보의 순차적 제시 유형

① 청동꺾창(靑銅--): 청동제의 창. 찍거나 베는 데 사용한 무기의 일종. 긴 자루를 옆으로 직각으로 끼움〈문화재〉

② 청동거울(靑銅--): 청동제 거울. 거울 뒷면에 기하학무늬, 철기 시대는 중국 한나라 거울 무늬를 본떠 넣었으며 고려 시대까지 썼음〈문화재〉

③ 찰주(刹柱/擦柱): 찰간(刹竿). 불탑 내부 중심에 세운 기둥으로 상륜부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함〈문화재〉

④ 지정폐기물(指定廢棄物): 특정폐기물이라고도 한다. 1995년 8월 4일 개정되기 이전의 폐기물관리법 상의 특정폐기물이 명칭만 변경된 것이다. 종류는 (1) 폐산 (2) 폐알칼리 (3) 폐유 (4) 폐유기용제(할로겐족, 비할로겐족) (5)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페인트 및 폐래커) (6) 폐석면 (7) 슬래그(광재) (8) 분진 (9)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10)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시유된 도자기편류 (11) 소각잔재물 (12)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13) 폐촉매 (14)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15) 폐농약 (16)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폐기물(액상의 것, 액상 외의 것) (17) 슬러지(폐수처리 슬러지, 공정 슬러지) (18) 기타(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에 한함)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처리의 책임이 있는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유해성분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감시 등의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국가에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민간 전문처리업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계획과 결과를 사전과 사후에 반드시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배출업소 또는 처리업소의 부도, 또는

처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방치・불법투기・매립하거나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처리하는 등 부정적 처리 사례가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독・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환경 및 무역〉

(2) ①, ②, ③의 경우는 (1)에서 확장을 한 것으로, 동의어구를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명사나 용언의 명사형으로 끝나는 형식으로 된 부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에서 부가 정보가 온전한 서술문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이곳의 부가 정보의 제시는 국어사전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18] 따라서 이곳의 부가 정보는 온전한 서술문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문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④의 경우는 동의어구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동의어구를 포함한 문장을 제시한 경우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표제어의 품사와 같은 품사에 속하는 단어로 끝을 맺어야 하는 정의문의 방식과 비교할 때 형식적으로 결함이 있는 경우라 하겠다.

①과 ②를 비교하여 보면 동일한 '청동'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①은 ②와 달리 언제까지 썼는지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내용 구성상 균질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것은 '창'과 '거울'이 지닌 성격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창'은 무기이므로 아무래도 모양과 용도가 어떤 것인지가 모두 중요하게 요청되는 정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반하여 '거울'은 용도는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므로 모양이나 재질에 초점을 맞춘 정보가 제시되는 것이 부가 정보로서의 효용이 크다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19]

---

18) 『우리말샘』에서 '청동^꺾창'은 "『역사』 청동으로 만든 창. 찍거나 베는 데 쓰는 무기의 하나이다. 긴 자루가 옆으로 직각이 되도록 끼워서 사용한다."와 같이, '청동^거울'은 "『역사』 청동으로 만든 거울.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 나타나며 거친무늬 거울, 잔무늬 거울, 본뜬거울 따위가 있다."와 같이 정의문이 제시되어 있다. 명사로 끝이 나는 첫 번째 정의문 다음에 제시된 둘째 이하에서 정의문은 모두 서술어를 갖춘 방식으로 온전한 서술문으로 작성된 것임을 볼 수 있다.

19) 참고로 『우리말샘』에서는 '창'과 '거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를 보면 '창'은 모양과 용도 모두에 해당하는 의미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만, '거울'은 모양이나 만드는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진 의미 정보가 제시되어 있어서 같은 명사라고 하더라도 담고 있는 정보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① 창: 「명사」 예전에, 긴 나무 자루 끝에 날이 선 뾰족한 쇠촉을 박아서 던지고 찌르는 데에 쓰던 무기.

② 거울: 「명사」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 보는 물건. 옛날에는 구리나 돌을

③의 경우는 위치와 용도를 제시한 경우이다. 이것은 '찰주'를 세우는지를 살피는 데에는 용도에 관한 정보가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우리말샘』의 '찰간'의 정의문을 보면 "큰 절 앞에 세우는 깃대와 비슷한 물건. 나무나 쇠로 만들며, 예전에 덕이 높은 승려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세웠다."와 같이 되어 있다. 이곳에 실린 부가 정보를 '찰주'의 부가 정보를 비교하여 보면, 『우리말샘』의 것은 '찰간'이 지닌 사회적 역할을 드러낸 것이라면, 〈문화재〉의 것은 '찰간'이 조형물의 요소로서 조형물 제작에서의 기능에 관한 것을 드러낸 것으로 차이가 분명하다.

④의 경우는 용어의 변화 내용과 용어의 하위분류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나열되고, 지정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되는 행정상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위분류에 해당하는 것들은 '지정폐기물'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임을 보여 준다.[20] 이와 같은 하위분류의 제시는 집합적인 개념과 방법을 이용하여 용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즉 상위의 용어와 하위의 용어를 연결해 주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1) 폐산', '(2) 폐알칼리', '(3) 폐유'의 성질을 지닌 것들이 다시 더 구체성을 지닌 여러 가지 것들로 하위분류가 이루어져 계층적 구조로 파악될 수 있게 된다. ④에서와 같이 제시된 정보는 백과사전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3) 용어 정의, 부가 정보의 순차적 제시 유형

① 홍탱화(紅幀畵): 붉은 색 바탕에 그린 불화. 주로 붉은 비단 바탕에 금니를 이용하거나 먹으로 그린 단색조가 많으나 채색을 한 것도 있음〈문화재〉
② 화원(畵員): 고려의 도화원, 조선의 도화서에 소속된 직업화가. 일반적으로 화원으로 알려져 있음〈문화재〉
③ 현판(懸板): 건물 안팎에 거는 액자틀. 편액(扁額)이라고도 함〈문화재〉

매끄럽게 갈아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보통 유리 뒤쪽에 아말감을 발라 만든다.

20) 여기에서 띄어쓰기가 같지 않은 '지정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이 함께 쓰여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처럼 띄어쓰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전자는 이 글에서 띄어쓰기를 포함한 맞춤법은 원자료집에 있는 것을 따르기로 한 것에 따라 〈환경 및 무역〉에서 실제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형태를 제시한 것인 반면에, 후자는 구 단위 전문어로서 간주되는 국어사전에서의 처리에 따른 형태를 제시하여 그렇다. 그러니 혼동을 겪지 않기 바란다. 뒤에 나오는 (8)의 '빙실효과'에 대하여 '빙실효과'가 같이 쓰이는 것도 같은 사정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 이 점 양해를 바라는 바이다.

④ 지도학(地圖學): 지도나 지형모형 지구본 등의 작성・표현・이용・교육 등의 이론. 기술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지도에 대한 것으로는 지도의 투영・좌표계・측량・지도의 도식・기호・지도의 편집・제도・제판・인쇄 등의 각 공정 및 이용・교육이 연구의 대상이다. 최근의 지도학의 기술개발에 대한 화제로서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측지측량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 지리측량 사진지도 이용의 가능성컴퓨터를 이용한 지도작성의 자동화 등이 있다.〈지적 및 공간〉

(3)의 경우는 (2)와 유사하나 정의가 종차와 유개념의 조합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용어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을 우선 제시하여 놓고 관련되는 내용을 이어서 제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제시된 부가 정보는 ①과 같이 어떤 예를 나열하며 구체적인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거나, ②와 ③에서와 같이 흔히 알려진 정보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거나, ④에서와 같이 세부 분야를 제시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런 정보의 제시 방법은 김현권[21]에서 제시한 바 있는 핵심적 지식, 부차적 지식, 실용적 또는 응용적 지식이 결합된 형식을 띠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정의 방법은 정의 대상이 되는 용어가 다른 용어와 비교하여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관련 용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식별하기 쉽도록 하는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4) 부가 정보, 용어 정의의 순차적 제시 유형

① 선순위상환: 일반적으로는 신규담보대출을 받을때 담보에 대한 선순위 권리가 있는 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말함,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등 주택금융공사 대출보다 앞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는 것〈주택 금융〉

② 이차보전: 금리를 우대하는 것. 이자차이(일반금리와 우대금리차이)를 정부 등으로부터 보전받는 것〈주택 금융〉

(4)의 경우는 (3)과 달리 용어 정의가 먼저 제시되지 못하고 부가 정보가 먼저 제시된 것이다. 즉 ①의 경우는 "주택금융공사 대출보다 앞서 받은 대출을

21) 김현권, 앞의 글, 43면.

상환하는 것.", ②의 경우는 "일반 금리와 우대 금리 차이를 정부 등으로부터 보전받는 것."이 앞서 제시되지 않고 뒤에 제시되므로 정보의 제시 순서가 뒤바뀐 경우이다. 이곳에 제시된 부가 정보는 독자에게 익숙한 것을 제시하거나 설명의 대상이 되는 용어가 지니는 효과를 제시하거나 하는 성격을 지닌다.

(4)와 같은 정의의 방식은 국어사전에서의 제시 방법과 같지 않은 것이다. 또한 용어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려면 정의를 아는 것이 선결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에 기반을 두고 예, 종류, 관련되는 내용들을 알아 가는 것으로 확장되는데, (4)는 이런 흐름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에 적절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5) 부가 정보가 복합된 형태의 정의문 제시 유형

① 첩(帖): 서화를 책처럼 꾸며 한 장씩 감상하도록 엮은 것으로 두방(斗方)이라고도 함〈문화재〉

② 첨차(遮): 공포를 이루는 기본적인 부재로 기둥머리나 소로 위에 얹히어 윗부재를 받침〈문화재〉

③ 철사유(鐵砂釉): 철분에 장석(長石) 등 유리질이 조금 섞인 유약의 한 종류로서 태토에 바름〈문화재〉

④ 석채(石彩): 광물성 안료로 만든 물감으로 색이 진하고 오래감〈문화재〉

⑤ 홍살문(紅-門): 왕릉, 향교, 서원 등 입구에 기둥 두개를 세워 기둥 상부를 가로 방향으로 연결하는 부재를 걸치고 살대를 박아 신성한 구역임을 알리는 문으로서 붉은 칠을 하였음〈문화재〉

⑥ 지목(地目):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지적법에 규정된 명칭을 말하는데 토지를 인위적으로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 토지의 사용목적이나 성질 등에 따라 24개 종목으로 구분하여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종류이다.〈지적 및 공간〉

⑦ 중앙경선(中央經線): 지도의 중심을 지나는 경선으로 항상 직선으로 표시된다. 경·위선망의 대칭축이 되는 선이다.〈지적 및 공간〉

⑧ 직접관측(直接觀測): 구하려는 값을 직접 관측하는 방법으로 줄자로 거리를 관측하거나 트랜싯으로 각도를 관측하고 수준의로 고저차를 관측하는 방법이다.〈지적 및 공간〉

⑨ 주제도(主題圖): 어느 특정한 주제를 강조하여 표현한 도면으로서 일반도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색채 또는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된다. 토지이용도·지질도

・토양도・산림도・교통도・산업・교통・인구 등의 통계도 도시계획도지역계획 및 국토 개발계획도 등이 포함된다.〈지적 및 공간〉
※ 극(極): 지구의 회전축과 지표면과의 교점. 또는 지구의 회전축을 천구까지 연장한 축을 천축 또는 축이라고도 하며 천축과 천구의 교점을 천극 또는 극이라 한다. 지구의 남북극이 있듯이 하늘에도 남북극이 있다.〈지적 및 공간〉

(5)의 경우는 (3)과 내용 구성은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형식 면에서 볼 때 (3)은 용어 정의와 부가 정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인 데 비해서 (5)는 용어 정보와 부가 정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문장으로 복합되어 제시되어 있어 엄연한 차이가 있다. 이에 반해서 참고로 제시된 '극(極)'은 국어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정의문의 미시 구조가 가장 일치하는 것이다. 『우리말샘』을 보면 이 용어는 "지구의 자전축이 천구(天球)와 만나는 점. 북극과 남극이 있다."와 같이 정의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구조와 유사하게 제시된 것이다. 이처럼 국어사전과 같은 방식이 실제 학술 용어 정의문의 형식으로 보임에도, 이와는 다른 ①-⑨와 같은 방식이 학술 용어 정의문의 형식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들은 '-으로', '-로서', '-는데' 등을 표지로 하여, 앞부분에는 용어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부가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으로', '-로서'와 결합된 정보는 이 조사들이 쓰임에 따라서 어떤 자격이나 지위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는데'의 경우는 뒤에 오는 설명을 제시하기 위한 전제를 해 두는 것으로 뒤에 제시할 정보의 범위를 안내하고 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전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언어적 정의와 부가 정보가 형식상으로 분리되는 것이 독자가 용어 이해를 하는 데에 이로움이 크다. 그러하기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문이 제시된 것들은 제시 방식의 수정이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이 중 ① '첩'의 경우는 언어적 정의문이 "서화를 책처럼 꾸며 한 장씩 감상하도록 엮은 것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정의문은 유개념에 해당하는 '책'이 맨 뒤에 제시되지 않고 '책처럼'과 같이 표현됨으로써 종개념과 유개념 사이의 포함 관계를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곳의

부가 정보인 “두방(斗方)이라고도 함.”은 이 속에 ‘두방(斗方)’이란 동의어가 들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부가 정보의 제시 유형과는 차이가 있다.

⑨의 “어느 특정한 주제를 강조하여 표현한 도면으로서 일반도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색채 또는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된다.”의 경우는 ‘어느 특정한 주제를 강조하여 표현한 도면’ 부분이 종차와 유개념의 결합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일반도를 기준으로 하여-’의 경우는 부가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형이 좀 다르다. 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 해당 유형에 속하는 지도들을 나열하여 제시함으로써 예시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⑹ 표제어가 포함된 정의문 제시 유형

① 등록전환: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지적 및 공간〉

② 준성(準星): 준성은 항성상[恒星狀]천체라고도 부르며 1960년경 산테지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은하 중심핵의 폭발에 의한 전파발사되는 것을 고려하여 광을 관측하는 것이다. 지구로부터 보이는 준성의 크기는 항성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것으로 상대적으로 강한 전파를 발사하고 있다. 준성은 수십부터 백억광년 이상의 초원거리에 있는데 은하계내의 항성에 의한 고유운동이 무시된다. 따라서 천구의 위치기준으로 가장 적당하다.〈지적 및 공간〉

③ 독도(讀圖): 지도에서 어떤 지점의 위치 지점간의 거리 상대적 위치 기타 단순한 지리적 사실을 찾기 위한 행동을 독도라 한다. 내용으로 축척. 위치 방법 기복의 표현. 기호로 세분된다.〈지적 및 공간〉

㉠ 지하수위등고선도(地下水位等高線圖groundwater table ma): 지하수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하여 작성한 등고선도〈지적 및 공간〉

㉡ 지상측정용카메라(地上測量用카메라): 정밀한 도면작성과 해석을 위한 지상사진은 특별히 고안된 지상측량용 카메라로 촬영한다. 개략적인 도면작성이나 해석에는 일반사진기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사진주점과 사진좌표측정을 위한 지표 또는 격자가 표시되어 있고 렌즈수차와 필름굴곡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된 측량용 사진기를 말한다.〈지적 및 공간〉

⑹의 경우는 모두 표제어가 정의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할 때 메타언어에는 표제어가 포함되어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형식상 적절하지 않은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은 '종차+유개념'의 결합으로 정의문이 작성되어 있지 않고 첫째로는 '표제어 X는', 둘째로는 '표제어 X라 함은', 셋째로는 '-을 표제어 X라 한다'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방식의 유형이 학술 용어 정비 결과물에는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②의 경우는 (2)의 ① '청동꺾창', ② '청동거울'과 같은 유형이 복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준성=항성상 천체'가 동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1960년경 산테지에 의하여 발견되었다.'가 부가 정보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의 정의문 안에서 종차와 유개념의 결합으로 바꾸어 표현하여 본다면 "1960년경 산테지에 의하여 발견된 항성상(恒星狀)의 천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과 같이 표제어가 되는 구가 분리가 되기는 하였지만 정의문의 메타언어로서 그대로 이용되어 표현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표제어 자체가 반복된 것은 아니고, 구성 요소가 활용된 경우이다. 이 경우도 구성 요소인 '지하수위'와 '등고선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것들은 구성 요소가 되는 용어들의 난이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다양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지상측정용카메라'의 경우는 현재 "정밀한 도면작성과 해석을 위한 지상사진은 특별히 고안된 지상측량용 카메라로 촬영한다."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다. 이 정의문은 사실 표제어는 '지상 측정용 카메라'인 반면에 정의문 속의 어형은 '지상 측량용 카메라'로 어형이 완전히 같지 않다. 그런 점에서 (1), (2)와 관련되는 유형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기는 하지만 형태적 유사성이 아주 높으므로 같이 다루기로 한다.

이곳의 정의는 엄밀히 말하여 '지상 측정용 카메라'의 용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정의문은 '특별히 고안된 지상 측량용 카메라'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표제어와 동일한 형태가 쓰인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즉 표제어로 '특별히 고안된 지상 측적용 카메라'가 되어야 정확한 형태의 일치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제거하고, 정의문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형식에 따른다면 현재의 정의문은 "정밀한 도면 작성과 해석에 쓰일 지상 사진의 촬영

을 하는 데에 사용하는 카메라. 개략적인 도면의 작성이나 도면의 해석에는 일반 카메라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사진 주점과 사진 좌표 측정을 하는 데에는 지표 또는 격자가 표시되어 있고 렌즈 수차와 필름 굴곡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된 지상 측정용 사진기를 사용한다."와 같이 작성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7) 예시를 통한 정의 유형

① 직업성질환(occupation-related diseases): 직업성 질환은 부상으로 인한 질병과 직업병. 작업상태에 기인한 질환 화학물질에 의한 질환 병원체에의한 질병. 구체적으로는 전리방사선에 의한 피부장해, 백혈병등. 잠극병소음성난청, 요통, 진동장해, 경건와증후군 유기용제 중독, 연, 망간등 금속중독, 진폐증. 벤젠의 요로계총참염화비닐의 간혈관육종 산소결핍증 등 많은 종류의 것이 있다. 이런것의 방지책으로 노동 안전위생법, 진폐법이 정해져있다. 고용관계는 노동자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환경 및 무역〉

② 지역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는 '우리 마을에 해로운 것은 절대로 안된다'는 님비(NIMBY) 현상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지역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조처 혹은 시설의 그 지역내 설치를 요구하는 소위 '핌비'(PIMBY) 현상도 지역이기주의의 다른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간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쟁점은 이른바 혐오시설의 설치다. 혐오시설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듯이 혐오시설과 관련된 지역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왕도도 별로 없다. 그러나 사업수행자와 관련 행정기관이 혐오도와 위험성의 실질적 감축을 위한 시설의 개선, 정보의 철저한 공개, 신뢰구축, 의견수렴 절차의 제도화 등과 같은 민주적 절차를 착실히 지켜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가지 우리나라의 많은 사례에서 갈등을 증폭시킨 중요한 요인은 비민주성과 불신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사업수행자와 행정기관이 예외적인 물질적 보상과 지도자 회유 같은 기술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바른 접근이라고 볼 수 없다.〈환경 및 무역〉

③ 지열발전(地熱發電geothermal power generation): 지하의 수증기나 열수로 발전하는 경우와 지하에 물을 주입하고 고온의 수증기를 발생시켜 이것을 발전에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지하에서의 증기에는 황화수소나 수은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것에 의한 대기오염, 혹은 열 배수에 의한 열오염이나 열수 중에 함유된 염류나 유독금속에 의한 수질오염 등이 문제가 된다.〈환경 및 무역〉

(7)의 경우는 표제어에 해당하는 예를 제시함으로써 설명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경우이다. 이 가운데에 ①과 ②는 (6)에서 지적된 바 있는 것처럼 정의문에 표제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7)의 경우는 우리들이 접해 보았거나 알고 있는 것들을 나열해 줌으로써 독자들이 해당 예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추출하고 관련성을 모색하고 귀납함으로써 정의를 내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용어 자료집의 이용자가 알고 있는 예들을 잘 활용한 것이라면 나름대로 효과성을 지니는 정의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반대로 이용자들이 예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용자는 어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불친절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즉 제시된 예들이 용어를 이해하는 데에 전형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고 적절한 개수가 제시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이를 접하는 독자는 도리어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정의문의 형식이라고 하겠다.

대표적으로 ①을 보면 '작업성 질환'은 현재의 정의문이 쉽게 읽히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찬찬히 이해를 하여 본다면, ㉠ 부상으로 인한 질병과 직업병, ㉡ 작업 상태에서 기인한 질환, ㉢ 화학 물질에 의한 질환, ㉣ 병원체에 의한 질병과 같이 원인에 따라서 구별되는 네 가지 범주가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에 "전리 방사선에 의한 피부 장해, 백혈병 등. 잠극병 소음성난청, 요통, 진동장해, 경건와증후군 유기용제 중독, 연, 망간등 금속 중독, 진폐증. 벤젠의 요로계총참염화비닐의 간혈관육종 산소결핍증 등"이 구체적인 예로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구체적인 예들이 네 가지 범주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일반 독자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②를 보면 설명은 많이 되어 있지만 유형에 해당하는 '님비', '핌비'에 대한 이해와, 이들 유형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지역 갈등'이란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지역이기주의'를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정의문이 작성되어 있다.[22] 또한 ③의 정의에서 "지하에서의 증기에는…"의 경우는 '지열 발전'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인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이것은 용어 정의라기보다는 백과사전적 정보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예를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정의가 되도록 하는 귀납적 방식은, 일반적으로 용어 사전에서 용어의 언어적 정의를 내리고 부가 정보를 달고 예시를 보이고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과 차이가 크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은 후자의 방식과 비교할 때 정보가 집적되거나 응집되기 어려운 나열 방식의 정보 제시여서 그렇다. 이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정의의 내용을 파악하여 내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을 갖는다고 하겠다.

⑻ 반의어를 이용한 정의 유형

① 빙실효과: 대기오염은 해를 거듭함에 따라 증대하고 있다. 탄산가스, 유황산화물, 먼지 등의 증가는 태양광선이 땅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구는 아이스박스 속에 넣어진 상태가 되어 기온이 내려가는 현상을 빙실효과라고 한다. 빙실효과와 반대되는 것이 온실효과이다〈환경 및 무역〉

② Zoom in: 컴퓨터 상에서 대상물을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하여 화면의 축척을 크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zoom out은 전체적인 것을 보기위해 화면의 축척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지적 및 공간〉

⑻의 경우는 먼저 표제어에 해당하는 정의를 내린 이후에 반의어와 이 반의어에 해당하는 정의를 부가 정보를 이용하여 연이어 제시한 경우이다. 따라서 사실상 두 개의 표제어를 정의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한 것은 반의 관계에 있는 용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표제어에 대한 이해가 쉽고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잘 이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① '빙실효과'의 정의문은 차례대로 나열된 세 개의 문장의 취지로써 '빙실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정의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 후에 맨 마지막에 이 빙실 효과에 반대되는 것으로 '온실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22) 그리고 정의문은 설명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인데도 설명에서 벗어난 주장 등의 요소도 지니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3장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이와는 좀 달리 ② ‘zoom in’의 정의의 경우는 내용상 이 말이 ‘zoom out’과 반대되는 개념임이 분명하지만, 메타언어에서는 명시적으로 ‘반대’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zoom in’과 ‘zoom out’이 연결 어미 ‘-며’로 접속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열하거나 겸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대조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정의문의 형식 면에서는 반의어를 이용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처럼 반의어를 이용한 정의는 언어 사전에서도 일부 사용되고 있는 방식의 하나로 생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말샘』을 보면 “단일^목적^기계: 『기계』 특정 응용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기계 장치. 범용 기계에 반대되는 개념이다.”나 “단일-아: 「명사」 『의학』 홀로 태어난 아이. 쌍둥이에 반대되는 개념이다.”와 같이 부가 정보로 반의어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겨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정의된 것들에는 관련 어휘에 반의어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구조상의 특징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말샘』의 관련 어휘에 반의어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는 말을 생각하여 보면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에 이 부가 정보는 반의어 정보를 제시한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표제어에 대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8)과 같은 방식은 반의어 제시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반의어를 이용한 표제어의 설명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봄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9) 개념 설명, 개념어, 예시 등의 괄호 안 병기 유형

① 이차보전: 금리를 우대하는 것. 이자차이(일반금리와 우대금리차이)를 정부 등으로부터 보전받는 것〈주택 금융〉

② 압출^흐름형^폭기조: 폭기조에 있어서 혼합방식의 일종으로, 활성오니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입 하수는 산기장치의 급송기류로 일어나는 선회류에 따라서 혼합되어져서 압출흐름에 의해서 유하한다. 유수의 유속이 전체적으로 일정하므로 소정의 폭기시간을 확보하기 쉽지 않지만, 폭기에 의한 소화효과는 유입하수가 출구에 가까우므로 높지 않고, 입구에 있어서는

부하의 급격한 변화(충격부하)에 의해서 처리능력이 저하된다. 따라서 BOD-SS부하는 유입부에서 높고 유출부에서 낮게 된다. 산기장치의 공기량 조절이 필요하다.〈환경 및 무역〉

③ 에너지변형: 에너지형태의 물리적 변화를 줌으로서 에너지를 재생, 생산하는 것. (예:석탄액화) 영어 용법에서 "에너지 전환"이란 용어가 보통 이 의미와 에너지 형태의, 물리적 상황에서 아무런 변환도 주지 않고 에너지를 재생 혹은 생산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자주 쓰인다.〈환경 및 무역〉

①과 같이 정의문 속의 중요한 개념어가 낯설거나 난해한 것일 경우 '이자 차이(일반금리와 우대금리차이)'와 같은 방식으로 괄호 안에 설명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보가 제시되는 유형도 있다. 이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②에서 보듯이 '부하의 급격한 변화(충격부하)'와 같이 풀어서 제시한 정보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를 괄호에 넣어 병기한 유형도 있다. 그리고 ③과 같이 "에너지형태의 물리적 변화를 줌으로서 에너지를 재생, 생산하는 것.(예:석탄액화)"의 방식으로 예를 별도의 문장으로 제시하지 않고 괄호에 넣어서 문장 끝에 병기하는 형태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우리말샘』과 같은 사전의 기술 방식과 비교하여 본다면 형식적인 복잡성이 있는 것들이라 하겠다. 따라서 사전의 기술 방식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형식 면에서의 복잡성을 덜어 볼 수도 있다. ①의 경우는 '일반 금리와 우대 금리의 차이로 말미암은 이자 차이'와 같은 식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구사하여 복잡성을 덜어 볼 수 있다. ②의 경우는 '입구에 있어서는 충격부하 즉, 부하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처리 능력이 저하된다.'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복잡성을 더는 방법이 될 수 있다.[23] ③의 경우는 별도의 문장을 하나 제시하여 '-에너지를 재생하거나 생산하는 것. 석탄 액화가 이에 해당한다.'와 같은 식으로 복잡성을 덜어 볼 수 있다.[24]

---

23) 이와 관련하여 『우리말샘』의 실린 '광속', '구안파신' 등의 정의가 참고될 수 있다.
① 광속: 「명사」 『물리』 진공 속에서 빛이 나아가는 속도. 초속 299,792,458미터 즉, 1초에 약 30만 km이다.
② 구안파신: 「명사」 『약학』 교감 신경의 말단 또는 중추에 위치한 알파 투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교감 신경 억제 효과 즉, 혈압강하 효과와 심장 박동 수 저하 효과 따위를 나타내는 약물. ⇒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10) 유개념의 미제시 유형

① 탑(塔): 탑은 인도 고대어로 스투파(stūpa)라고 함. 스투파는 원래 부처의 신골(身骨)인 사리를 봉안하여 흙이나 돌로써 높이 쌓아 올린 분묘를 말하는 것이었으나 후대에는 덕 높은 스님들의 사리를 넣은 무덤도 탑이라고 함〈문화재〉
② 청동단추(靑銅): 고들개와 같이 가죽 말띠를 꾸몄을 가능성이 있음〈문화재〉
③ 해삭준(解索): 까실까실한 느낌을 주며 화감암이 부서진 것 같은 느낌을 줌〈문화재〉
※ 피마준(披麻): 위에서 아래로 길게 긋는 방식으로 마치 마(麻)를 풀어서 늘어놓은 듯 실같은 모습의 준법〈문화재〉

(10)의 경우는 유개념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정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명사인 용어를 정의하는 데 명사가 아닌 용언의 명사형으로 끝을 낸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유개념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종개념과 유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 중 ②의 경우는 '청동단추'의 용도만을 제시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곳의 '고들개', '가죽 말띠'란 메타언어의 사용으로부터 이 '청동단추'는 말과 관련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모양, 제작에 사용된 재료 등은 다루지 않고 용도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적절한 정의가 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③의 경우는 지금과 달리 유개념을 '준법' 또는 '동양화의 표현 기법', '산수화의 표현 기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 하겠다. 이를 참고어인 '피마준'과 비교하여 보면 같은 '-준'으로 끝나는 것인데도 일관된 방식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지는 않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피마준'의 정의를 ③의 '해삭준'과 비교하여 보면 유개념을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24) 이와 관련하여 『우리말샘』에 실린 '간접^인용절', '간접^처우^직원', '강제^보험' 등의 정의가 참고될 수 있다.
① 간접^인용절: 『언어』 원래 발화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화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인용절. 예를 들어 "철수는 영희가 참 빠르다고 말했다."에서 '영희가 참 빠르다고'가 이에 해당한다.
② 간접^처우^직원: 『복지』 사회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고객을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조리사, 영양사, 사무직원 따위의 직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③ 강제^보험: 『경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 건강 보험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 방식에 어디에서 사용되는 것인지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 부족함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길게 긋는 산수화의 기법. 마치 마를 풀어서 늘어놓아 실 같은 모습을 보인다.”와 같이 표현해 보거나 “위에서 아래로 길게 그어 마치 마를 풀어서 늘어놓아 실 같은 모습을 표현하는 기법.”과 같이 표현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끝으로 정의문의 제시 유형은 아니지만, 정의문에 반드시 포함되어 제시되어야 할 유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는 정의문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꼭 살펴야 할 부분이 된다. 이것은 유개념이 종개념의 범주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중요성을 띠어서이다. 이런 점에서 유개념의 제시 방식을 한번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11) 유개념의 제시 방식

① 패랭이: 상민들의 쓰개로 사용되기도 하고, 양반가에서는 관례 전의 동자들이 쓰던 모자의 한 종류.〈문화재〉
② 투조(透彫): 앞뒤가 모두 뚫려 가운데 빈 공간이 생기도록 새기거나 깎는 조각의 한 기법〈문화재〉
③ 판갑옷(板甲-): 한 개 내지 몇 개의 판 조각으로 만든 갑옷〈문화재〉
④ 진경산수(眞景山水): 화보를 중심으로 그리던 그림에서 벗어나 직접 사생을 통해 그린 실경산수(實景山水)〈문화재〉
⑤ 흑유(黑釉): 철분이 많이 함유된 유약을 씌운 후 번조하여 흑갈색으로 된 것〈문화재〉

(11)의 경우는 종차와 유개념을 활용하여 용어 정의를 한 것을 보여 준다. 이처럼 종개념에 해당하는 것이 유개념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시함으로써 정의를 내리는 방식은 언어 사전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이때의 종차는 변별적 의미 자질로 이해해 볼 수 있는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이 의미 자질과 상위어의 결합은 표제어의 개념을 가장 축약적이면서도 정확하게 기술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겠다.[25] 이런 정의 방식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온 방식[26]으로 그 역사가 오래된 것이다.

25) 김성진・정동열, 앞의 글, 150-151면.
26) 이해윤, 앞의 글, 148면.

(11)의 예들을 보면 유개념이 제시되는 방식이 용어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임을 볼 수 있다. ①과 ②에서는 각각 '모자의 한 종류', '조각의 한 기법'과 같이 '전체 속의 하나'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한 반면에, ③에서는 '갑옷', ④에서는 '실경산수'와 같이 명사 대 명사가 대응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⑤에서는 의존 명사 '것'을 이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언어 사전에서도 널리 이용되는 것으로 낯익은 것들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것'이 쓰이는 경우는 대체로 유개념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앞에 오는 말을 통하여 어떤 범주의 것으로 이해해야 할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⑤의 경우는 현재의 정의문으로는 '것'이 가리키는 바가 '유약'에 해당하는 것인지 유약을 바른 도자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즉 '것'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한자어 구성 요소인 '釉'가 지닌 의미에 해당하는 유개념이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釉'에 해당하는 '잿물' 또는 '광택'에 해당하는 것이 제시되도록 고쳐 본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제시될 수 있을 듯하다. "도자기에 철분이 많이 함유된 유약을 씌운 후 구워 만들어 흑갈색이 된 광택." 또는 "철분이 많이 함유된 유약을 발라 도자기에 발라 구워낸 결과 흑갈색이 된 잿물." 또는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도자기에 발라 구워 내면 흑갈색이 되는 유약."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④의 경우는 형식상의 문제가 아닌 내용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유개념으로 쓰인 '실경산수'란 말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제시되는 경우이다. 표제어에 해당하는 종개념에 비해 유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성과 보편성과 포괄성을 지닌 상위어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경산수는 실경 산수에 포함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진경산수화가 실경 산수화의 전통에 남종 화법(南宗畫法)이 가미되어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실경 산수화와 같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이 둘을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이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27]

이런 점을 생각하여 본다면 이 둘을 종개념과 유개념의 관계로 묶는 것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28] 현재의 종차인 "직접 사생을 통해 그린"은 실제로는 '진경산수'에 해당하는 것이기보다는 유개념으로 제시된 '실경 산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진경산수'와 '실경 산수'를 구별지어 주는 종차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점을 주의하여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겠다. 그렇기에 "화보를 중심으로 그리던 그림에서 벗어나 직접 사생을 통해 그린 산수화."와 같이 하여 실제의 경치를 그렸다는 점을 드러내는 정보를 종차로 제시하여 산수화를 꾸미게 하여 종개념과 유개념을 분명하고 알기 쉽게 제시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3. 학술 용어 정의문의 구조 보완의 필요성 및 방안

1) 정의문 구조 보완의 필요성

2장에서 여러 유형을 나누고 구조를 살펴본 학술 용어 정비의 결과물 속의 정의문은 언어 사전에서의 정의문과는 차이가 있다. 언어 사전에서는 가장 먼저 용어의 언어적 정의를 내리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학술 용어 정비의 결과물에서는 언어적 정의를 언어 사전과 같은 방식으로 내리는

---

27) 『한민족문화대백과』의 '진경산수화'(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4575)의 설명에 따르면 진경산수화는 실경 산수화와 비교하여 "진경 화풍은 기존 화법과 남종화법을 우리 산천의 형상에 어울리는 필법으로 소화하여 낸 것이다. 실경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회화적 재구성을 통하여 경관에서 받은 감흥과 정취를 감동적으로 구현하였다는 데 그 특색이 있다."와 같이 그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 역사넷의 '진경산수화'(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r300825&code=kc_age_30)의 설명에서도 "진경산수화는 실경의 단순한 재현에 그치지 않았다. 왜곡, 변형, 확대, 축소 등의 회화적 재구성을 통해 자연이 주는 본질적인 느낌과 감흥을 담고자 했다."와 같이 차이가 있다.

28) 『우리말샘』에서는 '진경산수화'를 "우리나라의 실재하는 경관의 사생(寫生)에 주력하여 그리는 산수화. 조선 후기 정선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진경산수'를 "우리나라에 실재하는 경관의 사생(寫生)에 주력하는 화풍. 조선 후기 정선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화원(畫員)들 사이에 한때 널리 추종되었다."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실경 산수'를 "동양화에서, 실제 풍경을 그린 그림."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실경 산수화'는 미등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진경산수' 또는 '진경산수화'에 '실경 산수' 또는 '실경 산수화'를 유개념으로 쓰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것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도 공존하고 있다. 언어적 정의를 내리는 경우도 제시 방법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직은 틀이 확고하게 잡혀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상태라 하겠다. 그러므로 형식 면에서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정의문 중에는 온전한 구조의 정의문을 제시하지 않고 대응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에 해당하는 유형은 (1)에서 본 바와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대응이 되는 형태가 다른 동의어 또는 동의어구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들은 널리 알려진 용어를 이용한 정의를 도모하는 것이라는 지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래어 약어의 경우는 원어 본딧말을 통째로 제시하거나, 의미는 같으나 형태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어형을 제시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학술 용어 정비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의항에 제시된 동의어 또는 동의어구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피정의항에 제시된 용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이점도 있다. 그러나 정의항에 제시된 동의어나 동의어구가 피정의항에 제시된 단어나 구보다 더 널리 알려져 있고 난도 면에서 쉽다는 보장이 없고, 현실적으로 이와 같이 통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동의어나 동의어구가 지닌 의미를 일단 먼저 제시해 준 다음에 동의어 또는 동의어구를 이어서 제시하는 방식이 형식 면에서 독자에게 이로운 구조가 된다. 즉 (1)① '흰자기'의 경우는 "흰자기: 하얀색의 바탕흙 위에 투명한 유약을 발라 구워 만든 자기. 백자의 동의어이다."와 같이 제시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정의문 중에는 유개념이 충실히 제시되지 않은 것이 적지 않다. 유개념이 적절히 제시되지 않은 것은 표제어로 제시된 용어가 학술 용어의 어휘 체계에서 어떤 말과 상하위의 관계를 맺는 것인지를 적절히 보여 주지 못한다. 이것은 어휘들 사이의 관계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못한 학술 분야의 사정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학술 용어 정비 시 정의문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표제어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을 맺는 용어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확히 판단해 본 다음에 그에 입각하여 유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히 기대된다. 이런 요청에

부응해야 한결 정제되고 조직적인 용어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의문 중에는 종차가 충실히 제시되지 않은 것이 적지 않다. 이것은 유개념과 종개념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드러내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용어가 지닌 개념 사이의 관계가 충실히 파악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종차가 제시되지 못한 정의문이 적지 않은 것은 용어 정의의 형식적인 요건과 내용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으로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종차를 갖춘 정의문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용적으로 충실한 종차가 제시되도록 하려면 부족함이 있더라도 종차의 형식에 부합하는 종차가 우선적으로 제시되도록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즉 형식적인 요건의 반영을 통하여 종차의 자리를 채워 놓고 이 자리에 들어갈 내용의 충실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계를 거쳐서 종차의 충실도를 높이는 것이다.

끝으로 용어 자료집에 따라서는 정의문이 동사나 형용사를 풀이하거나 부가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온전한 서술을 하지 않고 용언의 명사형으로 끝을 낸 경우도 있다. 〈문화재〉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문화재〉는 명사로 끝이 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서술어를 종결 어미인 '-다'로 끝을 내지 않고 명사형 어미인 '-음/ㅁ'으로 끝을 내는 방식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일관성이 지켜진 것이니 이해가 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온전히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정의문 구조의 보완 방안

유개념의 제시와 종차의 제시는 정의문 속에 제시된 하위 종류 또는 예시의 제시와도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하위 종류 또는 예시는 표제어가 되는 용어가 지닌 속성을 공유하는 것들이면서도 구체적인 것들이다. 따라서 표제어의 하위어가 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제어가 지닌 개념이 구성 요소의 집합으로 어떻게 형식화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이와 비교하여 하위 종류 또는 예시를 제시할 때에 표제어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잘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학술 용어 정비 결과물의 정의문이 지니고 있는 형식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형화된 틀을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정의문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먼저 국어사전의 용어 정의 방식을 잘 살펴보고 이에 따르거나 이에 준하여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학술 용어 구축 결과물이 국어사전에 수렴되거나 다른 형태의 사전 편찬으로 이어지게 되는 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어서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사전 편찬 지침[29]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어 세부 지침〉에 따라서 정의문의 형식과 요건을 갖추고 전문 영역별 세부 지침에 따라 편찬되었다. 이에 따라서 『건설』, 『경제』, 『고적』, 『공업』 등의 전문 분야별로 뜻풀이 형식, 하위 유형 형식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 분야의 뜻풀이 형식에서 '높이'에 관한 뜻풀이라면 "-서 -까지의 거리."와 같은 틀로 뜻풀이를 하고, 하위 유형 형식에서 '건축 양식'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언제 어디서 생긴(발달한, 유행한) 건축 양식.",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것이라면 "-도록 지은(설계한) (건물의) 구조."와 같이 뜻풀이를 하도록 하고 있다.[30]

이곳에서는 '건축 양식 및 방식', '건축물의 구조', '집의 모양과 구조' 등으로 나누어 내용에 따라서 형식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집의 생김새와 구조'에서는 가) 생김새, 나) 기둥, 다) 문, 라) 창문, 마) 지붕, 바) 기와, 사) 도리, 아) 마루, 자) 널빤지, 차) 공포와 같은 식으로 집을 이루는 각 요소로 나누고 이에 걸맞은 정의문의 형식을 제시하고 있다.[31] 이와 같은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문의 양식은 학술 용어의 정의문을 작성하는 데에 좋은 본보기가 된다. 그렇기에 이 지침을 참고하여 학술 용어의 정의문의 형식적 틀을 마련하거나 보완하여 집필한다면 2장에서 살핀 문제점이 대폭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29)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I』, 국립국어연구원, 2000, 215-345면.
30) 국립국어연구원, 앞의 책, 219면.
31) 국립국어연구원, 앞의 책, 219-222면.

이와 같은 지침에 따라서 정의문을 제시한 후에 이곳에서 담지 못하는 것은 부가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 부가 정보를 제시하는 것도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Ⅱ』의 〈전문어 세부 지침〉에서 예시의 경우 "경제학 이론에 관련된 표제어를 개념만으로 뜻풀이하기 어려울 때는 설명부에 예를 들어 뜻풀이한다. 이때, '예를 들어,'로 시작하여 설명한다. 수익^가치 #4 『경제』 화폐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재산 가치. 예를 들어, 한 평의 땅 값이 1,000원이고, 이자율이 2%일 경우에 이 땅의 수익 가치는 5만 원이다."와 같이 세부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32] 이와 같은 본보기가 되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참고를 하여 형식적 요건을 잘 갖출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국어사전에서의 용어 정의 방식을 본보기로 하거나 참고하여 정의문을 작성하는 방법과 더불어, 교과서의 정의문의 형식을 적절히 참고하여 활용해 볼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학술 용어 정비 결과물이 전문가들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중들도 참고할 수 있는 것인 데다가, 전문가들에 의해 교과서, 에세이, 논문 등의 형태로 집필되고 대중들에게 소개되고 노출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교과서의 정의문에서 보이는 형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되어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의 세계에서 전문적인 지식의 난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는 과학 교과서의 정의문의 형식이 어떤지가 가장 효과적인 참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때마침 과학 교과서의 정의문의 형식과 관련하여 최준[33]에서 상세한 논의를 한 바 있기에 그 형식과 예시를 제시한 후에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여 보겠다.

(12) 과학 교과서의 정의문의 형식과 예시[34]

① d+{-는/-은/의} C+{를/는} T+{이-}+{라(고)} V{하다/부르다}: 예시) 생물이 지니는 고유한(d) 특징(C)을 형질(T)이라 하고(V), 형질이 부모로부터 자손

32) 국립국어연구원, 앞의 책, 223-224면.
33) 최준, 앞의 글, 2021, 797-799면.
34) 이 예시는 다음의 논문에서 가져온 것이다. 최준, 앞의 글, 2021, 797-799면.

에게 전달되는(d) 현상(c)를 유전(T)이라고 한다(V).[35]

② T+{는/란} d+{-는/-은/의} C+{이다}: 예시) 운동 마찰력(T)은 두 물체가 상대적으로 움직이면서, 서로 문질러질 때 발생하는(d) 마찰력(C)이다.

③ d+{-는/-은/의 C+{이} T+{이다}: 예시) 정지한 전자 1개를 1V의 전위차로 가속시켰을 때 전자가 갖게 되는(d) 운동 에너지(C)가 1EV(T)이다.

④ T+{는/란} d+{-는/-은/의} C+{를} V{말하다/의미하다/뜻하다}: 예시) 생물종 다양성(T)은 한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d) 정도(C)를 의미한다(V).

⑤ T+{는/란} d+{-는/-은/의} C+{으로/으로서} (V{정의되다/정의하다}): 예시) 역학적 에너지(T)는 운동 에너지와 퍼텐셜 에너지의(d) 합(C)으로 정의된다(V). / 단일 클론 항체(T)란 하나의 항원만을 특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d) 항체(C)로 세포 융합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다.

⑥ d+{-는데/-면} d´(대용 표현) C+{를/는} T+{이-}+{라(고)} V{하다}: 예시) 이때 새로 태어나는 개채는 어버이의 형질을 물려받는데(d) 이런(d') 현상(C)을 유전(T)이라고 한다(V).

학술 용어 정비 결과물의 정의문에는 부가 정보가 많이 제시되어 있다. 부가 정보는 정의의 대상이 되는 표제어의 어떤 점이 부각될 필요가 있는지에 역점이 놓이는 것으로 보인다. 즉 표제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모양을 아는 것이 중요한지, 용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지, 유래를 아는 것이 중요한지, 하위분류를 아는 것이 중요한지, 예시를 아는 것이 중요한지, 관련 법 또는 규정을 아는 것이 중요한지 등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부가 정보가 제시되고 있다. 이런 판단은 결국 표제어가 되는 용어가 어디에 초점화되어 있는지와 관련을 맺는 것으로 이해된다.

(12)에서 ①, ⑥과 같은 유형은 부가 정보를 제시할 때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의문의 유형이 될 수 있다. ①의 경우는 표제어가 지닌 의미를 관련을 맺는 다른 용어와 비교 또는 대조하는 방식으로 제시할 때에 유용한 방식이 된다. ⑥의 경우는 상세한 설명을 부가할 때에 참고할 만한 유용한 방식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자면 (8)에서 ① '빙실효과'의 경우 현재의 정의문인 "대기오염은

35) 여기에서 d는 종차(한정적 특징), c는 유개념(부류어), T는 종개념(정의 대상 용어), V는 동사를 나타낸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증대하고 있다. 탄산가스, 유황산화물, 먼지 등의 증가는 태양광선이 땅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구는 아이스박스 속에 넣어진 상태가 되어 기온이 내려가는 현상을 빙실효과라고 한다. 빙실효과와 반대되는 것이 온실효과이다"에서 보이는 반의어적 정보를 잘 대응을 시켜서 "지구가 아이스박스 속에 든 상태와 같이 되어 기온이 내려가는 현상을 빙실효과라 하고, 지구가 온실 속에 든 상태와 같이 되어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온실효과라 한다."를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런 후에 이를 '빙실효과: 지구가 아이스박스 속에 든 상태와 같이 되어 기온이 내려가는 현상.'과 같이 분리하고, '온실효과: 지구가 온실 속에 든 상태와 같이 되어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과 같이 분리함으로써 두 용어를 정의할 수 있다.

그런 후에 (12)⑥에서와 같은 방식을 써서 '탄산가스, 유황산화물, 먼지 등의 증가로 태양 광선이 땅에 이르는 것을 방해받게 되면, 지구는 아이스박스 속에 든 상태와 같이 되어 기온이 내려가는 현상이 생긴다.'와 같이 쓸 수 있다. 이것을 '언어적 정의문+부가 정의문'의 결합형으로 바꾸어서 써 보면 '지구가 아이스박스 속에 든 상태와 같이 되어 기온이 내려가는 현상. 이 현상은 탄산가스, 유황산화물, 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이 증가하여 태양 광선이 땅에 이르는 것을 방해받게 되면서 생겨난다.'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 대기오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부가 정보로 더 추가하는 형태로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과서의 정의문과 같은 형식으로 학술 용어 정의문을 다시 써 보고, 이것을 사전에서 정의문을 제시하는 틀로 바꾸어 표현을 해 보면 좀 더 안정적인 정의문의 형식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3) 백과사전적 정보의 적절한 제어 및 반영

학술 용어 정비 결과물의 정의문에는 백과사전적 정보가 많이 제시되어 있다. 이 글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예가 상당히 담겨 있지만, 이곳에 제시되지 않은 것 중에서도 상당한 분량의 백과사전적 정보가 실려 있다. 언어 사전에서도 백과사전적 정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술 용어 정비 결과로 제시

된 것에는 상당한 분량으로 된 백과사전적 정보가 실려 있어서 양적으로 굉장한 차이를 보인다. 이런 모습은 학술 용어 정비 자료집의 정의가 언어 사전적인 성격과 지식 사전적인 성격이 혼재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처럼 제시되어 있는 백과사전적 정보가 일정한 기준과 순서에 따라 제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로써 백과사전적 정보가 지닌 기능이 잘 구현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백과사전적 내용 제시 사이에도 일정한 틀을 만들어 그 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어떤 정보가 제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보 간의 연결이 한결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용어 정비를 이용하는 언중들이 관련어들에 제시된 정보들과 비교하여 보면서 용어의 외연과 내포를 파악하고, 정보들 사이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에 수월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용어 정비 결과물을 보는 사람들이 일정한 정보 제시 순서에 따라 정보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조직하여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④ '지정폐기물'에서와 같이 제시된 정보는 백과사전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정보가 어떤 순서로 제시되고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이해되도록 제시되는 것인지를 용어 자료집의 이용자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정한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틀을 만들 때에 (12)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방식이 훌륭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표현 방법도 그에 맞게 마련하여 두고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예시의 방식이 이용된 (7)②를 보면 정의문은 설명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인데도 "그러나 사업수행자와 관련 행정기관이 혐오도와 위험성의……볼 수 있다."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주장이나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하다", "바른 접근이라고 할 수 없다"와 같은 표현은 이런 주장이나 가치 판단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것이고 절차상으로도 중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면 정의문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논설적인 것으로서 정의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2)와 같은 틀이 제시되어 있다면 어떤 어휘를 써서 서술을 할 것인지도 표시되어 있기에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걸러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이런 점을 아우르며 백과사전적인 요소는 적절히 제어되며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4. 끝맺으며

이 글에서는 학술 용어 자료 구축의 결과물에서 용어의 뜻풀이에 해당하는 정의문이 제시되는 형식이 어떠하고 각 정의문의 형식이 지닌 구조가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사전학적인 관점에서 표제항을 풀이하는 정의항에 제시된 정의문의 적절성 여부를 살피고, 정의문이 지닌 문제점을 언어 사전의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논의해 보려 하였다. 이와 같은 고찰을 하게 된 것은 그간 용어의 정의문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막상 학술 용어 정비 결과물을 대상으로는 표제어의 처리, 용어의 표준화 등에 관심이 집중되었지 용어 정의문의 형식 면에서의 충실성과 내용 면에서의 충실성에 대하여는 잘 다루어지지 않아서이다.

고찰 결과 학술 용어 정비 결과물에서의 정의문의 제시 방식은 종차와 유개념으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정의문의 유형을 따른 것 이외에 다음과 같이 모두 10가지 정도로 유형화되었다. 각 유형은 (1) 동의어 및 동의어구 제시 유형, (2) 동의어 및 동의어구, 부가 정보의 순차적 제시 유형, (3) 용어 정의, 부가 정보의 순차적 제시 유형, (4) 부가 정보, 용어 정의의 순차적 제시 유형, (5) 부가 정보가 복합된 형태의 정의문 제시 유형, (6) 표제어가 포함된 정의문 제시 유형, (7) 예시를 통한 정의 유형, (8) 반의어를 이용한 정의 유형, (9) 개념 설명, 개념어, 예시 등의 괄호 안 병기 유형, (10) 유개념의 미제시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런 정의문의 제시 방식은 (6)과 같이 표제어를 정의문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데도 그렇게 된 것이 적지 않고, (4)와 같이 부가 정보가 용어 정의보다 앞서 제시되어 정보 제시 순서가 맞지 않는 것이 있고, (7)과 같이 명시적인

정의라고 할 만한 없는 것도 있고, (10)과 같이 종개념이 속하는 유개념이 어떤 것인지가 제시가 되지 않은 것도 있는 등 형식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표준국어대사전』을 대표로 한 국어사전과 초중등학교의 교과서에 실린 전문 용어 정의문의 구조 및 형식을 참고로 하고 기준으로 삼아 적절히 보완되고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중들이 학술 용어를 이해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데다가, 학술 용어가 전문가들에 의해 교과서, 에세이, 칼럼, 논문 등의 형태로 집필되어 대중들에게 소개되고 노출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교과서의 정의문에서 보이는 형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되어서이다. 이렇게 하면 사전 및 교과서와 연계되기가 수월하고 그럼으로써 용어 정비의 효과가 커질 수 있다. 또한 정보 구조의 면에서도 체계성을 띠고 이에 기반하여 용어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학술 용어를 접하는 사람들이 수월하고 체계적으로 용어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형식적인 요건을 먼저 충실히 갖춘 다음에 내용적인 요소들이 적절하게 들어갔고 배치되었는지를 살펴서 정의문의 충실도를 높이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학술 용어의 경우는 용어의 특성상 부가 정보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가 정보 제시에서는 정의의 대상이 되는 표제어의 어떤 점이 부각될 필요가 있는지에 역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표제어의 모양, 용도, 유래, 하위분류, 예시, 관련 법 또는 규정 등에 관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지에 따라서 부가 정보가 초점화된 형태로 제시되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과학 교과서의 정의문에서 보이는 부가 정보의 제시 방식은 훌륭한 참고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백과사전적 정보는 적절히 제어하고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언어적 정의만으로는 부족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잘 제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부가 정보 반영에 관한 정비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술 용어의 정의문은 일정한 지침에 따라

유형화된 방식으로 구조화되는 형식으로 제시되는 것으로서 정돈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형식적인 일관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용 파악의 수월성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형식적인 일관성과 체계성은 내용의 구조화를 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식과 내용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생각하며 어떤 방식으로 정의문의 틀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비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Ⅱ』, 국립국어연구원, 2000.
김성진・정동열, 「전문용어사전의 미시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1, 한국문헌정보학회, 2001, 143-162면.
김유진・신중진, 「교과 전문용어에 나타나는 분야 정보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 77, 한국언어문화학회, 2022, 29-47면.
김재호・배선미・신효식・최기선, 「의학 전문용어의 정의문 자동 추출」,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31(1B), 한국정보과학회, 2004, 922-924면.
김정훈・황유모・홍진웅・정찬수・최규하, 「학제간 학술 전문용어의 정비 및 표준화를 위한 전기분야 원칙에 대한 연구」, 『2005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대한전기학회, 2005, 864-865면.
김현권, 「전문용어사전의 정의와 지식표상」, 『한국사전학』 22, 한국사전학회, 2013, 32-71면.
김형국, 「정치외교학 분야 학술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작업」, 『한국국제정치학회소식』 123,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20-21면.
유희수, 「학술 전문 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 『한국서양중세사학회 연구 발표회』 42, 한국서양중세사학회, 2006, 9-22면.
이해윤, 「전문용어의 정의문 분석」, 『독어학』 7, 한국독어학회, 2003, 145-163면.
이현주, 「전문용어의 의미 파생과 그 사전적 표상에 대하여—용어화, 탈용어화, 재용어화 개념을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74,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21, 73-104면.
이현주・조동성,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의 특징 및 과제」, 『한국어 의미학』 35, 한국어의미학회, 2011, 245-283면.
최기선・박정원, 「전문용어의 정비」,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학술발표 논문집』,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2007, 303-310면.
최 준, 「과학 전문 용어 부가 정의문의 정보 유형 및 패턴—『표준국어대사전』 물리・생물 분야 뜻풀이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국사전학』 34, 한국사전학회, 2019, 127-157면.
_____, 「전문용어 정의문의 형태 및 패턴 분석-과학교과서 말뭉치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3-4(통권 80),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783-803면.

【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Complementation of Definition Sentence of the Results of Construction of Academic Terminology

Yi, Junhwan*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structural aspects of the definition sentence as an object of consideration in the results of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academic terms that have been conducted in various places, and discussed in what direction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problems of this structural aspect.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method of presenting definition questions in the results of academic term maintenance was classified into 10 types as follows. First, there are types of synonyms and synonyms. Second, there is a type of sequential presentation of synonyms and additional information. Third, there are term definitions and sequential presentation types of additional information. Fourth, there is a type of sequential presentation of additional information and term definition. Fifth, there is a type of presentation of a definition sentence in the form of a combination of additional information. Sixth, there is a type of presentation of a definition sentence (repeation of the title word) that includes the title word. Eleventh, there is a type of definition through example. Eighth, there is a type of definition using antonyms. Ninth, there is a type in which concept description, conceptual words, examples, etc. are written in parentheses. Tenth, there is a type that has not presented the concept of Confucianism. The definition method can be categorized in this type. The method of presenting the definition sentence contains various matter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in terms of form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 appropriately supplemented and maintained based on the form of Korean dictionaries and textbook jargon definition sentences.

Keywords: establishment of academic terminology data, definition sentence, type of presentation of definition sentence, supplementation of the form of definition sentence, Korean dictionary, technical terms in a textbook.

접수일: 2023.06.30. ‖ 심사일: 2023.07.12. ‖ 게재확정일: 2023.08.25.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honnam National Univ.